

미국과 중국 "성경책으로 연합하자"

중국 성경 사역 전시회 개막

28일 중국 성경 사역 전시회가 워싱턴 D.C.에서 미국, 중국 교계 및 정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막했다.

월슨 총장은 중국 성경 전시회 개막의 큰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중국은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종교적 부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인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중국 내 기독교 부흥 물결과 함께, 이 같은 행사를 주목해 지켜보고 있다"고 격려했다. 중국에서 참여한 기독교계 대표들은 "성경 전시회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기독교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전달했다. 후 시안웨이 주석(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은 성경사역전시를 향한 지지뿐 아니라 중국 기독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라 여겨진다"며 "이번 전시회가 중국의 교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종교교 왕주안 목사도 "사랑은 언제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성경 사역전시회를 통해 양국이 성경과 사랑으로 더욱 연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 내 단체 교단별 지도자 18명의 축사가 이어졌다. 미국 내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라냄의 역사가 아니라 연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성경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행사가 되길" 한 목소리로 축복했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라마 베스트 대표는 "첨단 기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이 전시회는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줄 것"이라고 도전했다.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국내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마이클 키나맨 총장은 "오랫동안 중국교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2009년 중국 방문 때 기독교의 부흥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서로에게 속해있다는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됐다"며 "또 성경을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자"고 권면했다.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교육이 담긴 성경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며 "참조와 타락, 대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만든다. 4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기독교인들을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11시 미



중국 전체 양회 주석이자 난징신학교 총장 가오펑 총재(중국기독교협회)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국 상하원의원과 각 교파 지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개막식을 가진 이번 전시회는 중국 선교 초기, 성경이 보급된 역사와 함께 문화혁명 당시 기독교 탄압 하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필사, 보급하던 이야기 등이 담긴 전시회를 열고 있다. 패널 토의는 10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국 내 교회 생활'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국 내 신학 교육'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한편으로는 신경림 목사가 두번째 패널 토의인 '중국 내 신학 교육'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외 각 패널 토의 당 중국 교

계 지도자 2명, 미국 교계 지도자 2명이 각각 참여한다. 한국말 가이드는 중국 북경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생 김애린 학생이 맡게 되며, 교회 혹은 개인별 선호 시간을 알리고 예약하면 한국말 단체 투어를 할 수 있다. 중국 성경사역전시회는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시카고, 달라스, 샬럿에서도 열리게 된다. 한국어 투어 문의) 202-885-8620(에스터 정) 전시시간) 10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10월 2일(일) 오후 2시~오후 6시 권나라 기자

남가주장로협 주최, 제5회 사랑의 찬양제 열려

불우 이웃 돕기 위한 취지...총 11개 팀 참여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의회, 회장 하기인 장로) 주최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25일 오후 5시30분에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장로협의회 수석부회장 한철수 장로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하

기인 장로의 환영사, 교협 이사장 손수웅 장로의 기도, 인랜드교회 박신철 목사의 말씀, 장로협의회 부회장 박광원 장로의 헌금기도, 장로협의회 회계 유문근 장로의 헌금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찬양제는 장로협의회 부회장 이찬건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나성성결교회, 할렐루야 싱얼즈 남성중창단, 미주복음방송 선교찬양단, 유니온교회, 세계비전교회 사랑여성성가대, 레위남성성가대, 글로리아안인합창단, 미주여성성가대,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장로성가대, 인랜드교회 등의 성가대에서 23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행사는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축도로 막을 내렸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푸른나무 미주본부, 10월10일 충현선교교회서 창립예배

최초로 북한 어린이들과 1:1 자매결연 추진

통일을 준비하는 푸른나무 뉴코리아 문화복지공동체 미주본부(가)는 10월10일 오후 4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북한 어린이들과 일대일 자매결연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간 북한 물품지원, 북한 장애인 복지 등을 후원해온 단체는 많은 NGO 단체들이 외국 어린이들과 일대일 자매결연은 하고 있으나, 북한의 어린이들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푸른나무 측은 "이번에 백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하며, 추후 그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자매결연은 1인당 한명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의 긴장조로 대북지원이 어려웠던 2010

년에도 해외 기관과 동포들의 파스 손길을 통해 북쪽에 후원물품을 지원했었고, 북한의 장애인 보호연맹과 협의해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장애인의 올림픽 참가를 후원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푸른나무 대표 박수광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코스타(KOSTA)의 국제총무로 사역했고 현재 상임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북한을 돕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푸른나무는 현재 5곳에 해외협력센터 설립했고 연내에 100곳의 협력센터 설립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협력선교사인 수 킨슬러 선교사는 1928년부터 평양에서 선교 및 성경구약부를 개척해 교육에도 헌신하신 프랜시스 킨슬러의 자부이며, 푸른나무 상임고문으로는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박사와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교수와 미국 NCC 회장을 역임한 이승만 박사가 고문을 맡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Customized Solution

Laservision World는 20년간 쌓은 전문 음향, 영상, 조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Yamaha, Sony, Sanyo, Digico, Barco, EAW, JBL, Da-Lite, Martin, Robe 등 200여 개의 공식 딜러십 보유 및 장비판매를 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ontent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월 실무 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방문 해 주십시오.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레이저비전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계획 또는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멀티미디어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오랜 경험과 실력의 저희 Laservision World를 만나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환경과 필요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예산에 맞는 Customized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우수성이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영상/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가 제공해 드리는 또 다른 서비스

- Pro Audio / Video / Lighting Online Store : www.avlgear.com
- 우리들의 문화 네트워크 Culture and Event Network : www.wori.com

YAMAHA, BARCO, JBL, EV, RCF, UJBL, Meyer Sound, GTC, bogen imaging, NEXO, ROBE, EAW, SONY, SANYO, SHURE, CHAISTIE, EDIROL, DIGICO, AVIOM, LEVITON, Martin, JVC, Panasonic, BOSE, TASCAM, DAELITE, Extron, SHARP, SENNEHEISER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학 신입생 환영회 개최

스포츠대회, 힙합대회
비전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 준비

한국대학생 선교회(KCCC USA)는 28개 대학 신입생을 한자리에 초청,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지난 23일 저녁 9시 엘바인 소재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6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새학기를 맞출 것과 함께 한 행사에서는 UC 엘바인에 재학 중인 2학년 알리 임(Ailie Ihm)의 간증으로 시작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그의 환경과

가정의 불화의 내용은 눈물을 자아내었고,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의 손을 지금 잡아주시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라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 후 KCCC의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목사는(KCCC USA 디렉터) 설교를 통해 4년 동안의 대학생

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이야기"를 만나길 소망한다며, 성경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도전했다.

또한 KCCC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한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8일에는 전체 KCCC 학생들이 모여 스포츠대회를 가진다. 칼스테이트 롱비치대학(CSULB)에서 있으며 각 대학 KCCC에 문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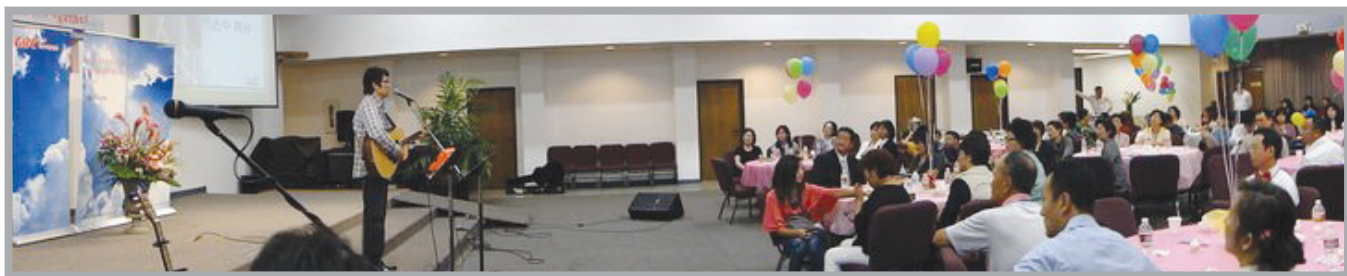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9시 엘바

인 베델교회에서는 총 상금 \$6,000 크리스찬 힙합 댄스 경연대회가 있다. 젊은이들의 기와 열정을 크리스찬 댄스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댄스 경연대회가 준비됐다. 1등 \$3,000 2등, \$2,000 3등 1,000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GKYM Vision 컨퍼런스가 샌디에고 타운 컨트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213-389-5222 (KCCC USA 오피스)

토마스 맹 기자



해산의 고통을 안고... 'Happy Together'

주님의교회 2011 새생명축제 은혜로이 마쳐

예배당에 들어서니 디너테이블에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예쁜 꽃과 양초가 분위기를 돋우고 맛있는 음식이 연이어 나온다. 빨간 나비넥타이에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필요를 채운다.

언뜻 보면 일반 레스토랑에서 있을 법한 모습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손님들은 주님의교회(담임 김병학 목사) 성도들에게 초대받은 새신자들이고 웨이터는 주님의교회 교역자들.

23일 저녁에 열린 주님의교회 새생

명축제-Happy Together는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약 6개월 이상을 기도하고 준비하여 진행된 행사다. 한나 사 무역을 맡기 위하여 기도하듯 이번에도 전도대상자를 사무엘로 하고 작정하는 사람을 한자로 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다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병학 목사는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하는 외부 행사인 것 같지만 우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리"라며 "교회에 와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부담 없는 축제가 되길 원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미주복음방송(AM 1190)에서 교회탐방 공개방송으로

윤우경 국장의 사회, 이은수 목사, 박갑수 목사, 조영석 전도사의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한 복음주의를 표방하나 새로운 영혼들에게는 더욱 문턱을 낮추고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작정이다. 김병학 목사는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부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자들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성도들과 힘을 합쳐 꾸준히 불신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 메디칼코디네이터/멘탈헬스케어,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 비즈니스매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 유학생 1:20 비율, 방문비자 BI,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 유학생은 LA ORT 졸업 후 워크퍼미트,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하나시니어서비스 개업 예배드리고 힘찬 시작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전문보 험회사인 '하나시니어 서비스(대표 데이빗 강)'가 개업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 설교에서 최병수 목사는 빌2:1-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을 주는 회사'가 되라며, '섬기러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노인을 섬기라'고 강조했다. 하나시니어 서비스의 데이빗 강 대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시니어들을 섬기

게 해 주신 뜻을 곰곰히 생각했다. 시니어들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시니어서비스는 본지 주관으로 남가주 한인교회의 시니어들을 찾아가 새로 바뀐 매디케어에 매디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세미나를 원하는 교회는 본지에 문의하면 된다. (213-739-0403)

이인규 기자



정중환 목사가 선교하는 멕시코 티



이인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맹 광고국장: 이인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아이토크비비로 안부 전하세요~

요금 Down 기쁨은 Up

새고객 보상프로그램 *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크레딧

30일 환불 보장!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이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 글로벌 플랜 | \$24.99 /월 (기타 수수료 별도)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호 필요 없다! 한국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 필요 없다!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료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전화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밍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월드 팩기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보상프로그램	\$70	없음	없음
12개월 총 금액	\$229.98(수수료 포함)	\$312.00(수수료 별도)	\$635.98(수수료 별도)

* 새고객 보상제도-1년 계약 기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실 수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며,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회사의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5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약관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토크비비를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8.7544
활동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북미주 한인 CBMC LA 대회 10월6일부터

남가주 기독실업인들에게 좋은 기회... 주제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

북미주 한인 CBMC의 최대 축제, 제 16차 북미주 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오는 10월6일부터 8일까지 LA Westin LAX Hotel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북미주 CBMC 전 회원들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주와 한국과 중국, 아시아와 유럽 CBMC 회원들이 참석한다. 주회는 북미주 CBMC 총 연합회이며, 주관은 남가주 CBMC 연합회에서 한다.



가나안 교회, 강종원 장로(은혜한인교회), 강석희 시장(얼바인) 등이 나선다. 대회준비위원장인 황선철 장로(남가주CBMC연합회장)는 "이번

대회는 전세계적인 모임으로 영성있는 발전과 그 사업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길 원한다."라며 "15년 만에 LA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남가주 기독실업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CEO, 비즈니스 전문인, 기업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 운영의 바탕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많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 : 213-598-7596(김영근 총무), yongk.kim@sbcglobal.net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다민족 크리스천

라티노 유산의 달 맞아 축복기도 이어져

코리안-라티노커뮤니티협회(이하 KLCA, 대표 김태현)와 타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민족 연합 조찬기도회가 24일 오전 8시 가든스 위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 연합'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한인 교계 지도자들과 미국, 베트남, 중국, 라티노 등 120여명의 다민족 크리스천 리더들이 함께 모여 민족 간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현 대표는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며, 우리 모든 다민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깨달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 연사는 빌리그래함 전도제



단의 LA 전도 집회 회장인 카를로스 퀸테로 목사(Carlos Quintero, Iglesias Harvest Rock Hispana 담임)가 나섰으며, 커뮤니티 평화상은 마이클 가르시아(Michael Garcia) 목사와 홀리스들을 25년간 주야로 돌본 글로리아 김 목사(한국 시온교회 목사)에게 수여됐다.

또한 라티노 유산의 달을 맞아 라티노 문화 유산과 그들의 성취를 축하해주며 다민족 간에 동질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토마스 맵 기자

미기총 주최 "북미주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 개최

각 지역 교협회장, 대각성 기도의 불길 확산에 결의



미국의 영적 회복과 기도운동을 위해 미주 지역에 있는 25개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및 대표들이 모여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를 지난 20일 베델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미기총(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에서 주최하고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오리엔티카운티 지역에서 불붙은 대각성 기도회를 미전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미주 한인들과 4,200여 한인 교회가 무릎 꿇고 통

회의의 회장들이 함께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박용덕 목사(O.C교협 회장)의 사회, 손인식 목사의 설교,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와 취지 설명, 한기형 감독(미기총경회회장)의 축도로 개최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열린 1박2일의 일정은 세계의 상황과 대각성 기도 운동의 필요에 대해 민중기 목사(남가주교협 회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이어서 배현수 목사(위싱턴교협회장)의 사회로 미국의 거목성이 상실되기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절감하

고 먼저 영적지도자들과 참석자들의 통회 기도를 드렸다. 또한 SB48법안의 저지를 위한 기도와 미국은 물론 남,북한과 세계를 위한 기도회가 김희수 목사(샌디에고교협회장), 변재원 목사(샌프란시스코기연회장), 이동진 목사(이스트베이교협회장), 한태국 목사(코네티컷교협회장), 신동식 목사(메릴랜드교협회장) 등의 인도로 열렸다. 저녁 식사 후에는 북미주 각도시 별 대각성 불길정화에 대한 전략토론이 이만수 목사(남부뉴저지교협회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다음 날 아침에는 이동학 목사(샌프란시스코교협회장)의 사회로 대각성 기도운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됐다.

미기총 관계자는 "전만기 목사(디트로이트교협회장)의 사회와 송정명 목사의 설교로 모든 일정을 마친 이번 컨퍼런스는 앞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모임을 갖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지역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셨음을 확인하며 미주 각 지역에 대각성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 오순절의 부흥을 되찾고자 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B48 법안의 저지를 위한 선언문이 참석자 전원 의 서명으로 채택됐으며, 대각성 기도회 확산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토마스 맵 기자

'복합문화속 목회 리더십' 대안 제시한다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10월10~11일 충현선교교회서 개최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와 목회 리더십, 복합문화 속에서 2세 교육문제를 깊이 다룸으로 한인 이민교회를 돕는데 목적을 둔 제 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오는 10월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열린다.

'복합문화속의 목회 리더십'이란 주제를 갖고,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민중기 목사, 오정호 선교사(유틀리프교사), 전병철 목사(조지포크스대학교수), 강성모 박사(미주장신대 교수), 한기홍 목사(LA은혜한인교회), 좌수야 남 목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권상길 목사(나성영락교회 교육부 총괄), 김만태 박사(베대스다 대학교 교무처장), 최윤정 박사(TUI 대학 LA캠퍼스 학장), 안박사(CWMM 디렉터), 김영태 목사(Director of north county next generation ministries), 광수광 목사(푸른나무

대표), 이길소 선교사(베다니 다민족교회 선교목사), 조재형 박사(미주 감리교 신학대 교수) 등이 발표자 및 패널로 참여한다. 행사는 남가주 교협, 이민신학연구소 주최로 열린다.

주최 측은 "복합문화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복합문화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세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목회의 리더십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다루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는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신학을 확실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이민 목회를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이 심포지엄은 목사님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토마스 맵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문적인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www.igmc.org 글로벌선교교회

LA 통일(북한)선교대학 Unification Mission College

2011 가을학기 학생모집

통일(북한)선교대학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에서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가능(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2. 학기일정** 10월 6일(목) - 12월 17일(토) 정규수업: 목요일 저녁반(오후8시), 토요일 오전반(오전10시) (*출석은 27반 중 한 반만 하면 됩니다.) *북한선교 공개강의: 10월13일(목) 오후8시, 10월15일(토) 오전10시 / 강사 임현수목사(토론토콘빛교회)
- 3. 강의장소** 글로벌선교교회(담임김지성목사) 그레이스룸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 909-630-8722)
- 4. 강의내용** 북한선교학, 북한의 실상, 북한교회사, 미국/한국/중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통일비전, 북한선교 현장(구호, 의료, 교육, 비즈니스, 탈북자 사역 등등), 자유북한인 간증 등등
- 5.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학비면제)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지역현장 참관 가능
- 6. 입학/원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관심자면 누구나 환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매, 신앙간증문(구원간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 포함)
- 7. 등록문의** 구동립목사: 909)396-4441, dongripku@hotmail.com, www.igmc.org 조영길장로: 626)715-9657 / 박남수장로: 213)247-9116 / 황중민집사: 213)703-4989
- 8. 교수진** 김지성목사(LA통일선교대학학장), 김대평목사(비위선교회), 김철용선교사(바울선교회), 김인수총장(미주장신총장), 임운택교수(윌리엄스칼리지), 이광길교수(물리신학교), 양영식박사(전통일부처간), 배기찬교수(전대통령동학아카데미),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원장), 전영일박사(국제전략학연구소), 이우용목사(미주동북문화협력재단), 임현수목사(토론토콘빛교회), 고순희목사(이름다움교회), 알파터목사(FOC), 조기연목사(한기총교육국장), 김정현선교사(SON이스트리), 박세목장로(생복자재단), 서윤박사(전국정원지장), 김영로박사(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캔인선교사(GMT), 이석목사(모퉁이들교회), 이재환선교사(Come미션), 박신욱선교사(SEED선교회), 문정임목사(빛나라교회), 성현경목사(피사디나장로교회), 자유북한인 사역자 등등

* 그동안 강의하신 분들중 일부입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

학장: 김지성 목사 이사장: 조영길장로 ☎ 909.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남가주교협,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 가져



48명에게 500불씩 수여

남가주교협 이사회(이사장 손수웅 장로) 주관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17일 오후에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교협 이사회는 지난 8월8일부터 11일까지 LA 인근 식당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 기

금 마련을 위한 1일 식당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예배는 사회에 박세현 목사(교협 총무), 기도예배의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환영인사에 손수웅 장로(교협 이사장), 말씀에 민종기 목사(교협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수여식이 48명에게 500불씩 수여됐다. 또한 목회자 부모와 장학금 수혜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합심기도와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의 폐회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인랜드교회 박신철 목사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동역”

제 4대 담임목사 위임 및 시무장으로 임직 예배 열려

인랜드교회 제 4대 담임목사 위임 및 시무장으로 임직 예배가 18일 오후 4시 인랜드교회 예배센터에서 열렸다.

담임목사로 위임된 박신철 목사는 버지니아 소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행정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인랜드교회 3대 최병수 목사에 이어 4대 담임 목회자로 위임됐다.

박신철 목사는 위임사에서 “정병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게 하셨다.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나, 를 생각한다면 양떼를 섬기기 위해 모세가 한 것은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말이



박신철 목사

다.”라며 “성경은 또 그가 온유함에 승했다고 나온다. 리더는 온유해야 한다. 평생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과 함께 협력해서 양떼를 이끌었다. 제가 꿈이 있다면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 선포 가운데 예수그리스도만이 높이 들리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사역자다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성운 목사(PCA 한인 서남노회 노회장, 나성남포교회 담임)의 인도, 신홍식 장로의 대표기도, 인랜드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 정희주 목사(서남노회 증경 노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으며, 담임목사 위임식, 장로 위임식이 이어졌다. 임직된 시무장로는 백상철·이종의 장로이며, 한성운 목사가 권면을 전하고 정희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남가주한인선교대회, 피종진 목사 “쓰임 받는 인생 되자”



피종진 목사

남가주한인선교대회(이하 선교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주최로 열린 선교대회는 피종진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피종진 목사는 17일 저녁에 열린 집회에서 '내 영으로 부여주리라'(

요엘 2:28-32)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피 목사는 “전 세계를 심방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다.”라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몸이 사단에게 쓰일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일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께 쓰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종진 목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사명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 주신다.”라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됐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는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인간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에 박효우 목사, 대표기도에 추창호 목사, 성경봉독에 김중태 목사, 특별찬양에 질목회, 헌금기도에 고주모 목사, 광고에 정요한 목사, 축도에 김재연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킹덤드림 아카데미’ 5~12세 학생 모집중

하나님 나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요일 학교

남가주광명교회(담임 정우성 목사) 부설로 지난 5월 개원한 영성과 실력, 지혜를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요일학교인 '킹덤드림 아카데미'가 5-12세(K-6학년)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이 아카데미는 수업료는 없고 월 20달러의 점심값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남가주광명교회 '성막체험캠프'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우성 목사는 “성막의 의미를 깨달으면 삶과 예배가 회복된다”며 “성막안에 담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면 아이들의 삶이 변

할 것이다. 앞으로 킹덤드림 아카데미 성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강의하게 된다”며 많은 자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213-500-2186 이인규 기자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새 예배 처소 마련

10월10일부터 40일 대각성 기도회 시작...30일에 이전 감사예배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 빅토밸리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및 인터넷 선교에 힘쓰고 있는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가 자체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

이 교회에서는 10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주중(월-금) 오후 8시, 주말(토, 주일) 오후 7시에 '가정의 회복', '미국경제의 회복',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 '민족 대각성'의 기독교

제목과 놓고 빅토밸리지역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열린다.

교회 관계자는 “매일 저녁마다 부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 드리며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10월 30일 오후 4시에 있으니, 빅토밸리지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일예배 오전 11시 2세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30분 토요일 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시 교회 주소 : 15617 Burwood Road, Victorville, CA 92394. 문의 (760)220-3263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www.pgmusa.org

PGM 선교신학포럼

선교 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 선교신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 Here & Now 선교
- * 전문인 선교

- * 디아스포라 선교
- * 교회 중심의 선교

Oct. 18(화) ~ Oct. 19(수), 2011
필라안디옥교회

1998년 설립된 PGM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 PGM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

- ① 디아스포라 선교
- ② 평신도 전문인 선교
- ③ Here & Now 선교
- ④ 교회중심의 선교

위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선교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선교신학포럼을 가지고자 합니다.

포럼 참석자

<p>오상철 박사 (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김성훈 선교사 (Consultant of Diaspora Ministries in Wycliffe Europe and UK,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Diapora, Oxford) 송상철 목사 (아들란타 새한장로교회 담임) 유영기 목사 (L.A.나성북부교회) 마원석 박사 (Executive Director, David Yonggi Cho Research Tutor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김정한 선교사 (SON Ministry 대표)</p>	<p>이은무 박사 (KIMNET 사무총장,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 GP 국제 대표) 유승관 목사 (한국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최재선 선교사 (경제학박사, C국 전문인선교사) 이형석 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오정호 선교사 (Director, Korean Church Relations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p>
--	--

*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PGM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gm@pgmusa.org / Tel. 610-397-0484)
* 포럼기간동안 PGM정책이사회와 KIMNET정기총회, 필라안디옥교회 17주년 기념성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남침례교는 남미만 선교? 166년 된 명칭 변경 검토

지역색이 선교에 장애 된다는 의견 반영



최근 내슈빌에서 열린 SBC 실행위원회에서 회장인 브라이언트 라이트(Wright) 목사가 교단 명칭 변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Baptist Press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가 교단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SBC는 최근 교단 명칭 변경을 위한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남침례교에서 '남(Southern)'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역적인 느낌은 더 넓은 지역, 특히 북미 지역으로의 선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과거 인종차별주의 역사의 잔재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교단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 교단 차원의 검토에 들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열린 SBC 실행위원회에서도 이 주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명칭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이들 만큼이나 16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미 1천6백만 교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명칭을 바꾸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행위 참석자 중 한 명이 남침례교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인 R. 앨버트 몰러(Mohler Jr. 목사(남침례신학교 총장)은 "분명이 주제는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우리 침례교 지도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에 말했다.

이같은 논의는 내년 6월 열리는 연례총회에서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그 전까지 특별위원회는 교단 명칭의 필요성과 명칭 변경에 따른 법적, 재정적 의무 등에 대해서 검토 과정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장은 전 남침례교 회장인 지미 드레이퍼 목사가 맡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사이트(pray4sbc.com)에서 새로운 교단 명칭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순현정 기자
hison@chtoday.co.kr

'지옥 없다' 주장한 롬 벨 목사, 담임직 사임

올해 초 미국 교계에 일대 논란을 일으킨 '사랑이 이긴다(Love Wins)'의 저자 롬 벨 목사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 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벨 목사는 약 12년 전 자신이 개척한 미시건 주 그랜드빌의 마스 힐 처치를 지금껏 목회해 왔다. 7천여 교인 수의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 하나이며, 이같은



올해 초 영국의 한 교회를 방문해 설교 중인 롬 벨 목사

교회측은 "새로운 사명을 따라 떠나는 벨 목사를 축복하며 그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사

"더 많이,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성장에는 기독교 교리와 이슈에 관한 벨 목사의 과격적이고도 대중적인 설교와 저술 활동이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벨 목사는 지난 주말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벨 목사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저술과 강연을 통한 사역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벨 목사가 내놓은 지난 3월 내놓은 '사랑이 이긴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견해에 도전을 던지면서 현지 교계에 신학적 논쟁을 불러왔다. 순현정 기자

美 종교자유의 위기? 가정 내 성경모임에 벌금형

당국 "허가 없이 종교적 단체 설립·활동 금하는 법 위반"

종교자유 탄압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주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의 척과 스테파니 프롬 부부는 최근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시 당국은 프롬 부부가 조건부 사용 허가(CUP) 없이 거주 지역에서 종교적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고 이같은 처벌을 내렸다.

스테파니는, "어떻게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고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해당 활동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Pacific Justice Institute)측은 프롬 부부의 성경공부 모임이 일상적 대화 수준의 소리를 넘는 어떤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시 당국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는 도시로, 이 곳의 종교자유의 전통이 위협받고 있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순현정 기자

우즈베키스탄 당국, 기독교인 출국 제지

이달 초인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기차를 타고 출국하려는 기독교인 리디야 구세바(Lidiya Guseva)를 저지한 일이 발생했다.

리디야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침례교회 교인이며 그녀는 당시 수도 타슈켄트(Tashkent)에서 출발하여 러시아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밝혔다.

러시아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러시아행(行) 기차를 탄 리디야는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에서 출입국 관리에 의해 기차에서 하차 당했고 타슈켄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시간은 밤 12시였기 때문에 기차를 탈 수 없어 택시를 타고 타슈켄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리디야는 기차표와 택시 비용을 합쳐 13만 сом(소, 한화 약 8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출국을 금지 당한 리디야는 2010년 12월 24일 타슈켄트의 잔지오타(Zangiot) 지역 법정에서 이웃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 서적과 잡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갖고 들어 왔다는 책임을 물어 종교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리디야는 2011

년 2월 4일 상고심 법정에서는 승소를 하여 벌금 부과를 면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문소의 출입국 관리 요원은 리디야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녀의 기차를 통한 출국을 저지한 것이다.

리디야가 공무원에게 상급법정의 판결 복사본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지만 그녀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녀의 이름이 출국 금지 명단에서 곧 삭제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다. 항소심을 통해 법정이 담당 정부 부처에 그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 공무원은 해명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정

부에게 보낸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우즈베키스탄의 출입국 및 시민권 담당 부서는 종종 종교인과 인권 활동가 그리고 야당 인사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해외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 비자가 필요하며, 출국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2년이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종교는 전체 국민(2,779만 명)의 85%가 믿는 이슬람이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한국선교연구원(krim.org) 발표>

먹고 바르기도 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팝니다.

충분한 워런티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OFF)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0월 10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2대표
- KWMA 운영이사
- 총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1차 9월 27일(화)~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 무임은 **기쁘게**를 하제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 (로얄빌딩)
안내전화번호 213.514.0039 / 213.393.3131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태)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11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뉴욕교협 회장선거 2파전 구체적 공약 필요할 듯

교협, 철저한 후보자 검증의지...최초의 후보토론회도 관심사

뉴욕교협 차기 회장 선거가 2 파전으로 결정됐다. 23일 뉴욕교협 선관위가 오후5시 후보접수를 마감한 결과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가 회장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화합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현재 뉴욕교협의 어수선한 상황을 인식한 듯 화합을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명예회복을 내걸었다. 또 세 번째 공약도 서로 같은 내용으로써 청소년과 2세를 위한 대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대략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차

원에서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교협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갖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원기 회장은 23일 "선거가 잘돼야 교협도 잘 된다"는 글을 통해 후보검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의 통화에서도 "과거엔 적당히 지나간 적이 허다하지만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다"며 "교협의 차기 리더십을 이제 제대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통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토론회를 정기총회가 열리는 일주일 전인 10월17일로 예정하고 있어, 이 또한 후보자들이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관위는 후보

자토론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질문들만 하기 위해 이달 말 한 차례 모임을 갖는 등 예년과 다른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교계의 이렇다 할 의견이 아직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차기 회장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총회 전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서류심사에서 또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도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다.

뉴욕교협 제37회 정기총회는 오는 10월24일 오전10시 뉴욕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김대원 기자

길자연 대표회장 “WEA 지부 설치해 총회 본격 준비”

한기총 임시총회서 밝혀...11월 초 WEA총회 유치 감사예배

최근 대표단을 구성해 세계복음 동맹(WEA)본부 방문, WEA총회 일정을 확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대표회장이 한국에 WEA지부를 설치해 총회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27일 열린 한기총 임시총회 이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기총이 세계교회와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길자연 대표회장은 WEA 준비와 관련해 “2014년 서울 코엑스에서 WEA 세계대회를 여는 데, 내년 1월 서울에 WEA 지부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기총이 세계 교회와 좋은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길자연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세상의 직장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

한 봉사기관이기에,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한 달 내로 만들고 예상 투명성을 분명히 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에 귀 기울이면서 한기총을 차근차근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임을 한 이광선 직전회장은 “이제 한기총이 각 교단에 개혁을 가져다주고, 이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며,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고, 세계 교회와 약속한 WEA(세계복음 연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민족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임기 당시 WEA총회 한국유지를 성사시킨 바 있다.

한기총은 오는 11월 초에는 WEA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를 비롯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WEA총회 유치 감사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이날 WEA총회 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커뮤니티 향해 활짝 문 연 참사랑교회

오픈 커뮤니티 행사 통해 지역 주민 섬겨



울해도 지역 주민 4백여명이 참석한 오픈 커뮤니티 행사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울해도 커뮤니티를 향해 교회 문을 활짝 열었다. 9월 25일 오후 4시 '오픈 커뮤니티-핸드 인 핸드' 행사를 열었다. 올해도 3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시장, 타운 수퍼바이저 등 기관장, 관공서 직원, 지역 주민은 물론 참전용사와 입양아 가족들이 참석했다. 한장연 한인회장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올해 행사 주제는 '음악'. 한국의 전통음악부터 K-POP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이 소개됐다. 1부에서는 대금, 가야금, 해금 등 한국 전통악기 연주가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해금과 색소폰이 어우러져 'You Raise Me Up' 연주를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2부에서는 한류를 소개하고 끼

가 넘치는 청소년들이 댄스와 음악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국 SBS 스타킹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입양아 양은 프로 못지않은 댄스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태권도 시범은 울해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한국의 전통음식 비빔밥을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됐

다. 참사랑교회 여성교회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다. 교회는 이 외에도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선물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오픈 커뮤니티' 행사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다. 매년 9월 마지막 주 열리는 '오픈 커뮤니티'는 이제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 첫 해에는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몇 명이 올라 내심 걱정도 하고 준비하는 데 손도 많이 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섬기는 손길에 노하우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특히 입양아 가정들에게 '오픈 커뮤니티' 행사가 많이 알려져 매년 찾아오는 입양아 가정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은희곤 목사는 "다민족, 다문화권 속에서 한인들이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행사에 많은 이웃들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가 한인 이 거의 없는 햄스테드 지역에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 이웃 섬김 실천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며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타문화권 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신교의 실제와 적용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PGM 미션스쿨이 지난 23일부터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제2선교관 세미나실에서 2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미션스쿨은 동 선교회 비전스쿨 및 각 선교단체의 기초훈련을 끝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훈련 중급과정'으로 특별히 타문화권 전도 사역과 타문화권 제자훈련에 대한 원리와 전략, 전술을 다루고 있다.

이번 미션스쿨에는 30여명이 등록해 선교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으며 강사로는 이은무 선교사, 장황영 목사(비엔나한인교회 담임, PGM이사), 김종관 선교사가 나섰다.

지난 24일(토) 전략적 초문화권 전도를 주제로 강의한 이은무 선교



이은무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각별한 진분을 맺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교사는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하거나 구제나 봉사를 통해 다가가는 방법 전략도 있다"고 말하고 현지

선교훈련 중급과정 PGM 미션스쿨 2주간의 일정 시작

사는 "바울은 선교 전략적으로 로마를 가려 했다. 또 신약성경이 이방인의 언어로 쓰여지거나 오순절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전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며 인내, 끈 장기간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

인들의 잠재력과 동역, 지도자 양성 등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주까지 계속되는 미션스쿨은 특별히 10월 1일(토) 오전 7시 15분 장황영 목사 특강도 마련돼 있다. 장 목사는 동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교회인 비엔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동유럽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앤더슨 기자



개원식 일정

개원식일시 : 2011년 10월 28일(금)

영성수련회 : 2011년 10월 26일(수)~27일(목)

강사 : 장동찬 목사(뉴저지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

장소 : 중국 단동병원

문의 : SAM care 미주본부
213-381-1347 (최상영 본부장)
SAM care International
714-515-5433 (이양화 본부장)

신청마감 : 2011년 9월 30일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중국 단동복지(기독교)병원 개원식과 영성수련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00년 4월 처음 단동복지병원 개원식을 하고 압록강 강변에서 선상예배를 감격의 눈물 가운데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제 병원을 단동 시내 한복판으로 이전하고 압록강 강변으로 훨씬 가까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병원과 물댄동산 사역을 통하여 3,500명(다수의 북한 환자 포함)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여러분들을 단동병원 개원식과 영성수련회에 초청코자 합니다.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제 16차 북미주 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주제: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쉽

“세계 최대의 한인 디아스포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남시다.”

일시: 2011년 10월6일~8일

장소: WESTIN LAX 호텔

초청 강사진



신승훈 목사님
주님의영광교회



민종기 목사님
충현선교교회



이종용 목사님
코너스톤교회



노진준 목사님
한길교회



이철 목사님
가나안교회



강충원 장로님
은혜한인교회



강석희 시장님
Irvine, CA



Min Kim 회장님
Open Bank

제16차 북미주 CBMC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북미주 한인 CBMC의 최대 축제, 제16차 북미주 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Westin LAX Hotel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북미주 CBMC 전 회원들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더욱이 북미주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아시아와 유럽 CBMC에서도 참석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들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신승훈 목사님 (주님의영광교회), 민종기 목사님 (충현선교교회)을 비롯해 이종용 목사님 (코너스톤교회), 노진준 목사님 (한길교회), 이철 목사님 (가나안교회)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강충원 장로님 (은혜한인교회), 강석희 시장님 (Irvine, CA)의 특강과 간증의 특별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미주 CBMC가 처음 시작된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번 16차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CBMC의 더 큰 도약과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비전과 도전을 우리의 기업과 사역에 적용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북미주 기독교 실업인 총 연합회
주관: 남가주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

- 대회장: 권 정 (북미주 총 연합회장)
- 대회 준비위원장:
황선철 (남가주 연합회장), 이봉우 (남가주 전 연합회장)

문의처: 김영균 사무총장
(213) 598-7596, youngk.kim@sbcglobal.net

| 합동 최종 |

‘제자교회 사태’에 중재위 파송 기각

“소송 결과 곧 나와… 임원회 중재자 역할 가능”

예장 합동 제96회 총회 마지막 날(23일) 사무처리에 서 소위 ‘제자교회 사태’가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왔고 정치부(부장 홍현삼 목사)는 이를 중재위원 5인을 파송해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됐다.

정치부 서기 서광호 목사는 “제자교회 문제는 현재 사회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총회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아닌 양측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중재위원 파송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장로(대구노회)도 “교단 산하 교회의 문제가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총회는 해당 교회의 아픔을 당연히 돌봐야 한다”며 “이런 교회 문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회가 중재위원을 내자”고 정치부 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중현 목사(성남노회)는 “이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얼마 있으면 판결이 난다”며 “교단이 별도의 위원을 파송하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중재위원 파송안을 거부했다.

이호현 목사(합남노회) 역시 “총회가 만약 제자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을 파송하면 총회가(정삼지 목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사회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총회 임원회가 얼마든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중재위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정치부안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거수로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고, 제자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가 따로 중재위원을 파송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 결국 정치부안은 기각됐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측은 총회 첫날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측 중 한 명이 합동 정기총회 첫날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진행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항의의 표시로 길바닥에 드러눕는다. ©김진영 기자

지난 19일부터 총회 장소인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합동 총회는 23일 4박 5일간의 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 통합 최종 |

“한기총 내에서 계속 개혁 추진할 것”

안전 상당수 남겨둔 채 폐회… ‘맛디아식’ 준비뿔기 부결

예장통합 총회가 나흘째인 22일 안전을 다수 남겨놓은 가운데 총대들의 요청으로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관례에 따라’ 폐회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닷새간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4일째에 회의를 마무리지었던 통합 총회는 올해도 규칙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관련조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기구개혁위원회, 교회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기독교대책위원회, 교회관련법및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일부 총대들은 교단법상 처리할 안건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 앞당겨 폐회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23일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미 절반이 넘는 총대가 자리를 떠나버려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회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기독교공보와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등 총대들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서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해당 부서가 임원회로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총대들의 토론이 계속됐던 한기총 개혁에 대해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를 거쳐 △교단 소속 총대 22명은 11개 노회의 한기총 탈퇴와 행정보류라는 강한 의지를 유념하여 한기총 내에서 계속 개혁을 추진한다 △특별비상총회에서 개정된 정관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를 할 수 있다 △한기총 개혁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더 강한 조치들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는 발언을 신중해 “한기총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우리 통합측인데, 행정보류를 하기 전에 우리 교단이 중추적인 교단으로서 역할



총회 모습

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사과성명을 내고 사죄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며 “11개 노회가 총회에 청원한 뜻도 헤아려야 하고,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국민들 앞에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위근 총회장도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책임이 크다”고 거듭었다.

앞서 오후 회무 처리에서 선거 방식을 ‘맛디아식’ 준비뿔기로 하자는 청원은 840명 중 찬성이 165명에 불과해 부결됐고, 임원선거 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의 사실 확인시 선관위 재적 과반수 의결이 있을시 후보 등록을 취소하자는 청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사회봉사부는 일본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북한식량지원기금으로 전용해달라는 청원을 했다가 자유와 함께 부결됐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전일 북한선교주일시 세례교인 1인당 1천원 현금 모금을 청원했으나, 조그런 축전 남독 여과과 북한 지원시 투명성 불확실 등의 이유로 허락되지 못한 바 있다.

이대용 기자

| 합동 중앙 |

신임 총회장에 조갑문 목사 선임

교단 부흥의 새로운 전기 마련… “다시 도약하는 총회로”

20일 열린 예장 합동중앙총회의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조갑문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임됐다. ‘다시 도약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총회회관에서 진행된 총회사는 신임 임원진이 구성, 발표되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다.

직전 총회장인 서욱임 목사가 3년간 총회를 이끌면서 총회회관 구입 등 교단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세웠고, 이제는 교단 부흥의 새로운 전기 마련됐다.

조갑문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단이 세워졌고,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 총회회관도 구입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은혜의 때요, 다시 도약하는 총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뭉쳐서 1년이 만에 총회회관을 구입한 기적을 이루어 냈다”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부흥을 위한 일에도 나타날 수 있게 전심전력해 보자”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예배, 성찬예식, 사무처리, 임원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기 권오장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손문석목사가 기도를 한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직전 총회장 서욱임 목사가 전했다. 서 목사는 총회회관 구입등과 함께 그동안 헌신해준 임원들을 치하하며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총회 발전을 위해 쓴소리도 전하며, 법과 질서



합동중앙 신임 총회장 조갑문 목사

그리고 참여에 대한 실천을 촉구했다.

성찬예식에서는 증경총회장 강용식 목사가 집례를 인도하며, 합동중앙 총회 아래 모인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무처리에서는 각 부서별 보고가 있었고, 신안건토의를 거쳐 예산승인과 상비부공천 승인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신 임원은 부총회장 손문석 이어백, 총무 이승진, 부총무 강효심 김정식, 서기 권오장, 부서기 한기용, 회록서기 김윤의, 부회록서기 함두만 기노성, 회계 이덕희 황순욱, 감사 이선욱·정예순·이종득·안성봉 등으로 구성됐다. 신태진 기자

| 대신 |

강경원 총회장 “더 큰 사명감으로 임할 것”

총회장 신임 투표와 통합 추진 문제로 진통

올해 창립 50주년 행사를 치른 예장대신 총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행 13:47)’를 주제로 19일부터 22일까지 용인 기흥골드웨미리콘도에서 제46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100년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비전 선포와 함께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 후보들이 모두 단독 출마했으나, 목사·장로 부총회장과 달리 강경원 총회장(부천예일교회)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힘겹게 당선됐다. 목사 부총회장은 황수원 목사(대구대신교회), 장로 부총회장은 조남술 장로(우이제일교회)가 각각 박수로 선출됐다. 강 신임 총회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늦게까지 투표를 한 끝에 당선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란 생각에 총대들께 죄송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총회장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회장은 “박재열 총회장님께서 총회회관 건립준비, 20만 전도운동, 작은교회살리기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공을 남기셨다”며 “이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교단의 모토가 될 것이며, 신학교에서 교단 정체성과 전도, 교회 개혁 등 실제적인 부분을 잘 훈련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3년 임기의 신임 총무에 홍호수 목사(푸른조강교회)를 선출했다. 이밖에 서기에 강



20일 대신총회에서 박재열 목사가 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총 목사(신일교회), 부서기 이태운 목사(평택새중앙교회), 회록서기 김승교 목사(안성중앙교회), 부회록서기 김종우 목사(주하교회), 회계 최준표 장로(하늘뜻심기교회), 부회계 김경식 장로(한국중앙교회) 등이 선임됐다. 총회에서는 한기총 탈퇴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고, 노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조태환 선교사에 대한 순교자 추서건이 재상정돼 총회에서 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예장백석과의 통합 결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회는 백석 뿐 아니라 신학이 맞는 교단과의 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통합추진전권위원회를 조직했다. 류재광 기자

LA 오토덴트

LA AUTODENT GRAND OPEN!

오토덴트

&

바디리페어



오토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덴트라 합니다.



BEFORE



AFTER

오토덴트의 원리
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덴트의 필요성
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흙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기분좋은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한국 장로교회, 지나온 100년의 명(明)과 암(暗)

“교단 수 250여개... 서로 인정하고 연합해야”



오덕교 박사가 발표하는 모습 ©신태진 기자

장로교회는 한국교회 중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관주의와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열을 거듭했다. 급기야 현재 등록 교단의 수는 250개이고, 비등록 교단까지 합치면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산하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오덕교 박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제18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2012년 설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 장로교 총회의 지난 역사를 평가하고,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 참석한 발표회에서 이종윤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직전회장)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한국교회의 원죄는 ‘분열’임을 지적하고, “초대교회도 게바·바울·아볼로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한국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오덕교 박사(합신대)는 ‘한국 장로교 100년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장로교회의 공로와 과실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오 박사는 “절저하게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며 “선교 100년 만에 인구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매년 1만명이 넘는 신학생을 배출하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이후,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나누어 설명했다.

조선시대의 장로교회는 현대적 의료제도의 도입, 구급·미신 타파, 위생생활의 보급, 사회제도의 개혁, 여권신장운동 전개, 한글 보급, 신교육기관설립을 통한 민족계몽운동, 민족자주독립운동 등을 주도했다. 그 예로 선교사 앨런은 1885년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광혜원을 설립했고, 무어의 신분차별폐지운동

은 감오개혁으로 이어졌다. 서재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남존여비사상 철폐, 축첩금지, 여성교육 등을 주장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세우고, 언더우드 등은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운동을 주도했다. 일제시대에는 한인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 및 민족정체성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신사참배에 대항하며 민족의 자긍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해방 이후에는 신사참배 처리 문제, 신학적 견해 차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hurch Council) 가입에 대한 입장 차이,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Explo 74’, ‘민족복음화 대성회’ 등 민족복음화 운동에 힘입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체험했다. 오 박사는 “과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사회제도

를 개혁하고 애국·애족운동을 전개하여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의 기독교인들도 경건하게 살면서 남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의 남은 과제로 세속화 지양, 차세대 준비, 인재와 재정의 적절한 배치, 남북통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선교와 지원, 교단 통합 등을 제시했다. 특히 200여개로 나뉜 장로교단의 통합과 관련, “한국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 예배, 교회정치에 차이가 없다”며 “일교단다체제”운동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안교섭 박사(장신대), 김요섭 박사(칼빈대), 연규홍 박사(한신대)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한국장로교 발전단계의 도전과 응답’,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와 신앙고백’, ‘한국장로교회와 칼빈신학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태진 기자

▶ 취재후기 군중심리,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합동과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6회 총회가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1천3백여 총대들은 새로운 회기를 이끌 임원들을 선출하고 교단 내 선적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결정됐다. 임원선거에선 교단 사상 처음으로 50대 목사부총회장(장준모 목사·57)이 탄생했고, 새로 뽑힌 총무(황규철 목사)는 기존 5년의 임기가 아닌 ‘기본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라는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 밖에도 ▲관상기도·왕의기도 교류 금지 ▲여자 목사안수 금지 ▲보수교단 중심의 WCC 반대 연합행사 개최 ▲교단 자체 새 찬송가 발행 ▲임원선거 방식 기존 ‘제비뽑기’ 유지 등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들을 결의했다.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합동’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자 목사안수’에 대한 건이다. 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총회 결의를 검토한 바 (고전 11:3) 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내용, 그리고 딤후 2:12-14 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에 비추어 여자 목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총회서만이 아니다. 지난 제22회, 제23회, 제74회, 제83회, 제89회, 제92회, 제95회 총회 등에서도 여자 목사안수를 허용해 달라는 현의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합동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보수교단임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이번 총회에서 ‘여자 목사안수 금지’ 건을 통과시킨



예장 합동 제96회 총회가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됐다. ©김진영 기자

‘여성 안수’ 역대 총회서도 번번히 거부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합동과 통합 ‘총대’는 없고 ‘목소리’만 난무하는 총회

과정 역시 매우 순탄했다. 일부 총대들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것도 백지화하자는 마당에 통할 리 없었다.

이런 합동과 달리 예장 백석은 이번 총회에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전격 허용했다. 물론 이를 두고 한때 갈등이 있었으나 ‘여성도 남성에 준한다’는 교단 내 여론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결과였다. 무엇보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여성 없이 교단 발전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연 합동은 이런 ‘보수교단’ 백석의 모습에 ‘뜻’

혀를 찡가, 아니면 ‘그럼 우리도...’ 하며 조바심을 낼까.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제비뽑기’다. 합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다수 총대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직선제 전환’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비뽑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선제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열망이 확인돼 올해 총회에서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이 논의는 큰 충동이 ‘제비뽑기’의 승리로 돌아갔다. 지난 해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절충한 이른바 ‘선거인단’ 제도가 찬반 양진영의 치열

한 공방 끝에 부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형식 상’ 찬반 모두의 의견이 개진되긴 했어도 대세는 이미 제비뽑기로 굳어진 뒤였다.

반면 예장 통합은 이번 총회에서 기존 직선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총회에서 일명 ‘맛다아식’ 제비뽑기가 새로운 임원선거 방식으로 대두했지만 투표 끝에 거부됐다. 투표인원 840명 중 이 제비뽑기에 찬성한 이들은 고작 165명 뿐이었다.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합동과 통합의 모습이다.

각 교단의 총회는 앞으로의 1년, 어쩌면 수십년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자리다. 특히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합동의 총회라면 그 영향력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이른다. 그만큼 신중을 기울여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치적 행동과 고성(高聲), 인격 모독적 발언과 총대답지 못한 태도 등은 철저히 반성하고 고쳐가야 한다.

합동의 이번 총회에서, 아니 그 이전 총회서도 항상 눈에 거슬렀던 점은 ‘군중심리’에 따른 주장이었다. 총회에 1천명이 넘는 총대들이 모이다보니 ‘나’는 모습을 감추고 실제 없는 ‘목소리’만 난무하는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 앞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기 보다 군중에 숨어 ‘감정을 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이 무서운 건, 이런 군중심리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총회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비겁하고 쉽게 내린 ‘무리의’ 결정은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김진영 기자

온누리교회 2대 담임에 이재훈 목사 최종 결정

공동의회서 92.9% 찬성

이재훈 목사가 온누리교회 2대 담임으로 최종 결정됐다.

온누리교회는 24일 오후 공동의회를 열고 이재훈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 건을 투표에 부쳤다.

결과 4757명 중 4421명(92.9%)이 찬성해 이 목사는

는 故 하용조 목사를 이어 온누리교회를 이끌게 됐다. 이날 공동의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단상에 오른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겠다”며 “온누리교회의 담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명심하겠다.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故 하용조 목사님을 이어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시당회장인 김진홍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공동의회 후 이 목사는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진영 기자

jkim@chtoday.co.kr



온누리교회 2대 담임으로 확정된 이재훈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김인수 칼럼

십자군(Crusade)



김인수
미주 장신대 총장

◎ 노르웨이의 비극
지상의 낙원이라는 노르웨이에서 지난 7월(2011년) 브레이비카라는 노르웨이 청년이 정부 청사에 폭탄을 터뜨리고, 경찰복으로 변장한 후 수련회 중인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조준 사격하여 80여명의 무죄한 사람들을 살육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브레이비카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극우주의자요 인종차별주의자며, 백인우월주의, 그리고 이슬람을 증오한 극단적 기독교도라는 수식어가 붙은 자였다. 내 종교, 내 민족, 내 혈통만이 제일이고, 타 종교, 타 민족, 타 문화의 생존권을 부인하는 이런 행위는 다문화 사회에서 극히 위험한 사고일 수밖에 없다. 이슬람을 박멸하기 위해 진군했던 십자군을 연상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십자군의 기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난 종교적 인물 마호메트가 다신론 사회에서 일신론(一神論)을 주장하자, 많은 박해를 받게 된다.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도망한 사건이 622년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헤지라(Hejira)라 하여 이슬람은 이 해를 원년으로 삼는다. 마호메트는 전열을 기다리고 전투를 벌여 다시 메카로 돌아온 후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을 무력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 파죽지세로 그 세력을 넓히면서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하더니 드디어 638년 성도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예루살렘 여러 곳에 있던 성당에 걸린 십자가가 내려지고, 이슬람의 상징인 반달 모양의 표식이 대신 내 걸렸다. 초창기에는 기독교도 성지순례자들의 여행을 방관하던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들은 차차 순례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재물을 빼앗고, 노예로 팔기도 하며,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교회(히랍정교회)는 서방교회(로마 가톨릭교회)에 구원의 호소를 시작하였다. 급기야 1095년 볼란서 플레르몽에서 모인 교회 회의에서 교황 우르반 2세는 성도(聖都)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할 때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Deus vult)라 함창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할 십자군이 형성되었다. 교황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십자군에 지원하

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사면하는 대사면령(Plenary Indulgence)을 선언했다. 여기서 저 악명 높은 면죄부 제도가 시작된다. 그러나 십자군은 정규 군인들이 아니고, 농부, 상인, 노동자 등 오합지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여 형성된 군대로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였다.

◎ 현대판 십자군
십자군은 항상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수놓은 전투복을 입고 전격했다. 십자가 기치 아래 살육과 강탈을 자행한 것이다. 십자가 가는 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이 자행되었다. 현대판 십자군은 미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KKK(Ku Klux Klan)라 할 수 있다. KKK는 미국 땅에서 로마 가톨릭, 유태인, 그리고 유색인종을 다 몰아내고 오직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s) 즉 백인, 개신교도들만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곡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걸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형이다. 자살 폭탄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알카에다, 탈레반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 십자가는 무차별의 상징이다. 십자가 가는 곳에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허물어진다. 21세기 지구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우리끼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이제 이질문화, 이질인종, 이질요인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종족이나 문화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오랜 역사를 지녀온 대학 생선교회인 CCC(Campus Crusade for Christ)가 그 명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crusade 즉 십자군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우리끼리의 십자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들이 만든 다른 십자가 일 뿐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관계 화해의 상징이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왜곡된 “브레이비카 신념”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때이다.

김한요 칼럼

주인은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는다



김한요
세리토스장로교회 목사

“No ownership means no heart-breaking.”이라는 말이 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맘 상할 일 없다’는 뜻이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자신인 줄 알고 노심초사 맘 상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격언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감 없는 행동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안일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고 일침을 놓는 말이다. 주인의식의 반대는 손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손님은 대접 받는 것을 전제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그대로 불평하는 사람이 손님이다. 또한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손님의식이다. 당연히 서비스를 제일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제일 좋은 시간대를 배당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덕이라고 외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역시 손님이 왕이다. 주인의식은 섬기는 것을 전제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집에 손님을 청해 놓고, 손님 줄 세워놓고 먼저 밥을 먹는 주인은 없다. 손님은 자기만 만족하면 속상할 것이 없지만, 주인은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불편해하면 제일 속상하다. 가게에 손님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라도 뛰어 손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식당업을 하는 성도와 대화를 하다가, “주인은 결코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귀가 번쩍 띄

었다. 손님들이 제일 가깝게 주차하도록 주인은 가능하면 멀리 차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주인의식이다. 교회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와 손님의식을 가진 성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님의식을 가진 성도는 불편하면 이내 불평을 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떠난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섬기는 주인의식을 갖는다. 손님성도는 가까이 주차하려 하지만, 주인성도는 주일마다 주차대란을 겪는 것을 감사하며 최대한 멀리 주차한다. 우리교우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해도 새교우들을 위해서 멀리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핸디캡에 주차하셔도 될 만한 분인데도 조금만 더 걸으면 된다고,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분들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너무 잘 가르쳐서 평생 손님처럼 지내려는 성도들이 많아질까봐 살짝 걱정이 된다.

진유철 칼럼

신앙의 최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진유철
나성순복음교회 목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기 하루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한 밤 중에 그 곳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초월기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13:31) “그(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고 통스런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질식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뜻밖에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절박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뛰어넘

는 영광, 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박수 받고, 환호를 듣고,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고 칭찬을 듣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시합에서도 이런 사람은 영광을 얻고 패배한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 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려고만 하고, 생색만 내려고 하고, 박수와 칭찬을 들으려고만 하게 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주님과 싸움이 안 맞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16:24)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

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9.11 새 생명 전도 축제'는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발로 뛰었습니다. 안내 위원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입기가 쉽지 않은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1대 교구 여성교회에 준비한 새 신자 도시락은 값으로 매기기가 어려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집기를 옮기며 기쁨의 비지빔을 즐긴 분들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식사로 섬긴 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은 '하늘 향기' 잡지, 기도의 응답으로 준비된 박지혜 자매의 찬양 간증과 한국에서 준비한 수저 선물 세트 등등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믿음이 넘쳐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행사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열매가 되기 위해 2주간(9월19-30일) 동안 각 교구와 지역과 구역, 남녀 선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을 심방하여 살피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성회로 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십자가 신앙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눈이 침침하십니까?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김영길 칼럼

송택규 칼럼

팔씨름 이야기

경쟁 사회의 비극



김영길 감리교회 목사

가끔 발 앞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몸의 균형이 앞으로 쏠려서 곧 넘어질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아침 직원예배후에 팔씨름 상대를 구했습니다. 소망회를 맡고 계시는 이성일 목사님이 제일 만만해보였습니다.

전장을 던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긴 사람의 부박을 들어주기로 삼급도 정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목사님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들은 이미 평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송택규 유인신학대학 학장

얼마전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에서 학생이 자살을 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와 도덕이라는 잣대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들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니 상아탑이니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된 사회 제도 때문에 일어난 우리 모두의 비극인 것이다.

건강 칼럼

불임 극복을 위한 방법과 한방적인 불임 치료

아기는 '신의 선물'로 불린다. 그 만큼 부모의 일생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그런데 임신이 불가능해 아예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몸안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 장애, 자궁장애, 난관 기능의 장애, 수정란의 착상 장애, 만능 질환이나 면역이상에 의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여성은 가능하면 35세 이전에 임신을 해야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배란 장애가 생기기 쉽다.

보는것이 좋다.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없는데, 월경주기는 규칙적인지, 골반에 염증 질환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난자의 성숙, 수정,남성의 정자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야채와 과일을 적당하게 섭취하면 임신 가능성뿐 아니라 임신 합병증과 태아기형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발생하는 난관 유착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자궁내막으로의 혈류량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 두껍고, 풍부하게 덮이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Table with 4 columns: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Rows include 신학부, 신대원, and 신대원 전문.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먼저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학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감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샅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소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뽕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변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 교체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벽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Higher Calling:2

더 높은 부르심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사55:6).
 살리실 것이며(아5:4),
 구하는 것을 찾게해 주실것입니다 (마7:7)
 청년들이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더 높은 부르심:2”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5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USD)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USD)
 2차 : 12월 11일까지 \$200 (USD)
 3차 : 12월 20일까지 \$240 (USD)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박희민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며 지도자들이 될 젊은이들이 이번 GKYM Vision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변하여 새사람되며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 새로운 비전과 역사관을 가지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기홍목사
은혜한인교회

세계선교마무리와 주님의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24:14)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에 교회가 더욱 집중해야할것은 세계선교입니다. 특별히 GKYM Vision 선교집회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것입니다.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Founder of Cornerstone Church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자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 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거할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흰돌선교회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중앙일보 /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워크 /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일보

- 명예대회장 대표회장/감사
 박희민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신승훈목사(아름다운교회)
 김희수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김중기목사(중원선교회)
 박성규목사(주님세운교회)
 박성근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동환목사(KCCUSA)
 김지성목사(글로벌선교회)
 이상우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Sam Koh 목사(Hillside Church)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박문영목사(아가페선교회)
 송병준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이광영교수(플러싱교대학원)
 조영원목사(큰빛감리교회)
 최경목목사(모잠비카선교회)

- 한기형감독(나성동산교회)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이성현목사(드림교회)
 임현수목사(토론토큰빛교회)
 최홍주목사(에브리데이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www.gkymwest.org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We know Medicare

2012년 당신의 메디케어 신청에 관한 정보

안녕하십니까?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의 대표 DAVID KANG 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니어분들의 성원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 HANA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65세 이하이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MEDICARE 보험의 혜택을 위해 메디케어 플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교육 되어진 그리와 자격증을 갖춘 소수의 에이전트로 현재 LA, BUENA PARK, TORRANCE, SOUTH BAY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많은 한인 노인 이민자들에게 도움되는 회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 하나님이 주인되신 회사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보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에서는

1. 65세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시민권자, 영주권자, 메디컬 세금 10년 보고), 메디케어는 65세 되는 생일 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입니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셨다면 HANA가 여러분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2. EXTRA HELP PLAN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엑스트라 헬프 플랜이란 메디케어 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 들을 위한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입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1달 소득이 부부 \$25,260 이하, 독신 12,260 이하이거나 부부 \$1226, 독신 \$908 정도의 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실수 있는 정부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칼 수혜자와 동등하게 처방약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의 재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 하여야 합니다).

3. MEDICARE SAVING PROGRAM (MEDICARE PREMIUM ASSISTENT PROGRAM)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서 메디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저소득인 시니어를 위해 메디케어 파트 A 와 B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소득/달 과 자산에 따라 지원받는 수준이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득이 독신의 경우 한달 \$908.00 부부 \$1226 이거나 최대 독신 \$1228 부부 1655 까지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개인의 자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4. MEDICARE PART D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되며 그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에 별도로 평생 부과 됩니다.

5. MEDICARE PART C 프로그램의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C 는 연방정부에서 운영 관리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메디칼 세금을 정부에서 승인 한 건강보험 회사나 일반회사에 메디케어 수혜자의 의료혜택을 이관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건강보험 회사는 고객 유치에 위해 원래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80% 보험 보장의 부족분 20%를 보충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치과, 안경 등등)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를 통하여 (AHIP 시험 통과 여부 그리고 보험제공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를 확인 하신 후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적당한 플랜을 선정 하여야 합니다.

6. 메디케어 파트 C 보험 가입시 메디케어 수혜자가 확인하여야 될 사항

- ▷ 보험에이전트의 자격 여부. AMERICA HEALTH INSURANCE PROGRAM, 시험 통과 확인, 각 보험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확인, 반드시 계약서에 보험 에이전트 본인의 이름과 회사 코드기입을 요구하십시오.)
- ▷ 건강보험(의료비에 대한 보장)회사의 규모와 역사 혹은 CREDIT RATE를 확인 하시면 플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회사의 역사 100년 혹은 미국전국 NETWORK 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 ▷ 현재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보험보장과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담당 주치의가 보험플랜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재의 주치의가 소속된 보험 플랜을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선택은 어떤 병원이 보험플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CLA, USC, GS, SV등등)
- ▷ 보험플랜의 가입시 일차병원 방문시 환자가 내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부터 \$15 까지 플랜에 따라 다양 합니다.)
- ▷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말이 아닌 서류상의 증명)
- ▷ 추가 혜택 치과의 경우 그 보험 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HMO 플랜의 가입시 타주의 친지 방문, 혹은 여행중에 그 보험이 보장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 플랜 가입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HELP, MEDICARE SAVING PROGRAM 가입여부 확인).
-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2011년10월달 부터 발생하는 메디칼 보험의 의료 혜택의 축소로 인해 병원 방문이 년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어떤 플랜으로 가입하여야 기존과 똑같은 혜택 (병원방문의 제한이 없고, 본인부담금을 없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변화되는 메디케어 플랜과 메디칼에 따라 보험수혜자가 숙지하여야 될 사항

- ▷ 2012년 메디케어 파트C 플랜은 각회사에 따라 그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플랜은 그 보험 플랜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중 캘리포니아 전지역을 보장하는 PPO 플랜은 2012년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PO 플랜에 가입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연락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메디칼 건강보험 혜택 축소 : 2011년 10월 1일부터 메디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1년에 병원이나 의사 방문이 7회로 제한이 됩니다. (단, 의사의 판단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의사의 허가서가 있으면 7회 방문에서 면제됨) 또한 2011년 11월 1일 부터는 병원이나 의사 방문시 \$5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됩니다. 병원 입원시 1일 \$100 최대 \$200 까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처방약 구입시 본인 부담금이 최저 \$3-\$5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감기약 기침약 건가보조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CALIFORNIA STATE BURGET 2011-2012, 제정안) 이 예산안 축소는 메디칼 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 ▷ 메디칼 만 가지신분 : 반드시 각 카운티에서 보내주시는 보험 관련 서류에 본인의 지정 의사를 정하여야 합니다. (예 LA COUNTY, LA CARE 혹은 HEALTH NET) . 지정의사를 정하지 않을 경우 다니시던 의사가 진료를 거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수혜자도 7회 병원방문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디칼에서 지정하는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시거나 (LA CARE, OR HEALTH NET) 혹은 메디케어 파트C (HMO OR PPO)프로그램에 가입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메디칼과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와 회사를 통해 DSNP 에 가입 하시면 이전과 같이 병원방문의 제한없고 본인 부담금없으며 치료혜택과 안경, 그리고 의료기구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추가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고객서비스 1-866-386-3053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LA 사무실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A, CA 90010

* DAVID KANG 이 월, 화, 수 근무합니다.

TORRANCE 사무실



DISRICT MANAGER :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0695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목요일 근무합니다.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금요일 근무합니다.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
MI YOUNG HONG Lic.#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10월 1일 2011년 사무실 오픈합니다!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한인시니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